

문화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은 '문화가 뭐 별거냐'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구태어 무슨 문화, 무슨 문화 하며 문화라는 말을 자주 쓴다는 점에서 보자면 문화에 대해 무엇인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다. 그 불편함을 말하자면 가볍고 천박한 짓거리이다.

세계는 날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생존을 위한 변화와 혁신은 계속되는데도 건강해야 할 대 학문화가 아직도 전근대적 모습으로 남아 있다 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요즘 우리 문화의 특징은 소위 가벼운 문화가 일반적으로 득세하고 있다. 주말 공영방송의 황금시간대는 개그프로그가 자리잡은지 오래고 영화관람객은 연간 수천만명에 이르지만 골치아픈 인문학 서적은 겨우 몇백권도 팔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

요즘 DVD를 빌려다 보면 두 유행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이야기와 있고 예술적 재능이 스며 있는 진지한 영화이고 다른 하나는 그저 자극적이고 재미있기만 한 만능 영화이다. 후자는 청소년들이 주고객이다.

가벼운 문화에 길들여진 세대들은 영화를 본 후의 감동을 싫어한다. 말하자면 패스트푸드 음식을 선호하듯 자양분이 있는 영화를 기피한다. 복잡하고 따분하게 생각한다. 오로지 감각적이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거꾸로 가는 '상아탑' 풍속도

고 자극적이며 깊은 사색이 결여되어있다. 그렇다보니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 없이 무엇이든 재미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그로인한 사회적 역기능은 또다른 사회적 천박성과 문화적 불균형을 만들어 낸다.

"남자들은 팬터차림이 됐고, 여자들은 면티와 바지만 남겨놓고 외투 등을 모두 벗었어. 결국 스포츠과학과 신입생들은 모두 거의 옷을 벗은 채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옛 정문 앞 근길에서. 쪽팔리고 싶지만 웃을 수밖에 없어요. 선배들 앞에서 인상

쓰면 죽어요."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고 말하겠지만 최근 모 대학 스포츠과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서 놀라게 한다. 이 대학뿐만 아니라 서울의 몇몇 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마치 과거 신봉현련소에서나 있었던 유격훈련식 진흙탕 얼차려와 단체로 없던려벌쳐를 했다고 한다. 부끄럽고 격정스런 문화의 후진성을 엿본다.

예부터 판을 벌여 놀기를 좋아했던 우리의 고유한 심성을 이해못해서도 아니고 집단주의와

신바람이 바탕이 된 젊음의 치기 정도를 이해하지 못해서도 더더욱 아니다. 우리는 식사를 해도 여럿이 함께하며 차를 마실 때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사회에 유독 신년회나 동창회, 뒷풀이 같은 모임이 많고 여러 사람이 한데 어울리는 노래방이나 춤이 특별한 사랑을 받아온 이유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놀려면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계기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것이 대중심리와 집단적으로 자칫 이성을 잃을수도 있다. 그 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폭력이 행사된다. 해마다 기업의 취업문이 좁아지고 입사 경쟁률이 높아지는데도 학교문화까지 잘못되고 있으니 학부포 입장에서 기가 막힐 일이다. 이즈음 입시만을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 가정에서부터 성숙한 사회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하는 교육 또한 절실하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한다. 마음의 관념의 틀 정도라면 구성원들의 생각이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 즉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세계는 상상력의 소산이다. 그래서 젊고 건강하고 창의적인 대학 문화는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몇몇 대학에서 있었던 일련의 작태는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불자의 눈

동국대학교가 '최고 대학'을 목표로 하는 새 바람을 불어 일으키고 있다. 최근 취임한 오영교 총장이 속고하여 마련한 '새 백년 동국'을 위한 비전과 전략, 108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이다. 오 총장은 이미 취임과 함께 경영부총장과 학사부총장 제도를 시행하는 등 변화의 폭을 다지며 '내부 고객'이 만족하고 외부 고객이 감동하는 월드 와이드 동국'을 강조해 왔다.

'108 프로젝트'는 5개 분야 국내 최고, 3개 분야 세계최고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목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108 가지의 과제로 정리된 것이 동국대학교 혁신의 골자이다. 발표된 내용들은 마치 기업의 생존경쟁을 보는 듯 긴장감을 자아내게 한다. 조계종 종립대학으로서 많은 구태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정체성 상실이라는 지적까지 받아 온 동국대고 보면, 오 총장의 혁신 의지는 '신선함'을 넘어 '살벌함'의 경지이다.

그러나 지금은 살벌한 분위기에서라도 과감하고 획기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 눈높이를 높이지 않으면 스스로 높아질 수 없는 것이 경쟁의 법칙이다. 때문에 세칭 일류대들은

동국대 '108 프로젝트'

화합과 협력이 성공 지름길

이미 경쟁 상대를 해외의 명문대로 정하고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 위해 뛰고 있다. 교원 다면 평가제와 성과에 초점을 맞춘 연봉제, 단과대학의 분권형 자율시스템 도입, 행정조직 개편 등은 지금 동국대가 넘지 않으면 더 이상 변화를 모색할 기회조차 없게 되는 절박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다소의 아픔을 감내하며 조정과 혁신을 하지 않고 발전을 말하는 것은 입 빌리고 앉아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우매한 일 뿐이다.

'108 프로젝트'는 동국대의 발전을 위한 상세하고도 합리적인 로드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학교와 종단 구성원 모두가 한결같이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다. 변화의 바람 앞에서 과거에 집착하는 분위기도 있고 국지적인 이익에 얽매어 전체의 흐름을 두려워하는 속도 없지 않은 듯하다. 그간 꾸준히 발전 모드를 추구해 온 불교대학의 경우 도 다소 혼란스러워 한다는 전언이다.

인문부의 위기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에 불교대학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독자적인 발전방안이 나와야 할 판에 학교 전체의 혁신 분위기에 '떨어뜨리' 된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다. 종립대학이란 정체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다시 한 번 살피고 챙길 필요가 있는 의견이겠지만, 전체의 변화와 혁신 코드를 흐트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의 묘가 찾아지길 바란다.

아무리 좋은 길도 가지 않으면 허사다. 가려다 서로 화합과 협력으로 가지 않으면 끝없는 '갯길'이 만들어지고 종내는 모두가 미로를 헤매게 된다. 인간 번뇌를 상징하는 10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백년의 희망을 담은 숫자로 탈바꿈 한 것부터 학교와 종단 구성원 모두에게 화합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종교자유' 칼럼

3. 국민의 합의, 정교분리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종교자유는 개인의 중요한 인권문제로서 세밀한 점검을 통해 우리 사회에 종교로 인해 부당하게 대접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종교가 정치와 결탁해서 권력화 되거나 제도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특정종교를 우대함으로써 그 종교에 소속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일도 중요하다. 특히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이 자신의 종교색깔을 지나치게 표출하거나,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공공재산이나 공공장소를 특정종교가 부당하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2항의 정교분리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서구사회에서 정교분리가 처음 확립될 때에는 주로 정치가 종교의 고유영역을 침범하여 활용하거나 유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종교가 국가권력과 밀착하여 순수목적 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특정종교를 우대해서는 안되며 공직자나 공인의 종교편향적 언행이나 국가기관과 공공시설에서의 종교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여러 분야에서 특정종교가 정치권과 밀착되어 갖가지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현대사에서 서구열강의 문화적 침략과 사회지도층의 역사적 부재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수백 년간 유교가 불교를 억누르고 유교 스스로도 황기를 잃고 피폐해져 종교적 진공상태가 된 것이 우리의 전통 문화와 종교를 무시하는 서양종교의 오만한 인성을 부추긴 셈이 되고 말았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서양종교에 대응할 유일한 고등종교인

을 누리려고 하고,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현대사에서 서구열강의 문화적 침략과 사회지도층의 역사적 부재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수백 년간 유교가 불교를 억누르고 유교 스스로도 황기를 잃고 피폐해져 종교적 진공상태가 된 것이 우리의 전통 문화와 종교를 무시하는 서양종교의 오만한 인성을 부추긴 셈이 되고 말았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서양종교에 대응할 유일한 고등종교인

을 누리려고 하고,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현대사에서 서구열강의 문화적 침략과 사회지도층의 역사적 부재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수백 년간 유교가 불교를 억누르고 유교 스스로도 황기를 잃고 피폐해져 종교적 진공상태가 된 것이 우리의 전통 문화와 종교를 무시하는 서양종교의 오만한 인성을 부추긴 셈이 되고 말았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서양종교에 대응할 유일한 고등종교인

을 누리려고 하고,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현대사에서 서구열강의 문화적 침략과 사회지도층의 역사적 부재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수백 년간 유교가 불교를 억누르고 유교 스스로도 황기를 잃고 피폐해져 종교적 진공상태가 된 것이 우리의 전통 문화와 종교를 무시하는 서양종교의 오만한 인성을 부추긴 셈이 되고 말았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서양종교에 대응할 유일한 고등종교인

을 누리려고 하고,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현대사에서 서구열강의 문화적 침략과 사회지도층의 역사적 부재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수백 년간 유교가 불교를 억누르고 유교 스스로도 황기를 잃고 피폐해져 종교적 진공상태가 된 것이 우리의 전통 문화와 종교를 무시하는 서양종교의 오만한 인성을 부추긴 셈이 되고 말았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서양종교에 대응할 유일한 고등종교인

의 투명화, 그리고 평등사회'라는 거대담론에만 매달려 온 나머지 오히려 국민의 의식 수준과 요구 수준이 높아진 사실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개인적이고 은밀한 자유·평등 과제인 종교자유 문제와 그에 따른 심각한 인권유린 현상, 그리고 종교집단의 권력화에 밀린 정교분리의 헌법정신 훼손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감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큰 틀에서 방향을 잡겠다고 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불명확하며 독선적인 분야가 버젓이 남아있는 것을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종교 문제이다. 사회 흐름과 무관하게 특권층 의식을 버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변화가 더딘 곳이 종교계이다.

정부는 종교계와는 가끔씩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상책으로 알고 있는 반면, 일반시민 사회에서는 오히려 종교계의 반시대성, 반인권성에 대한 비판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종교 문제가 우리 사회가 개혁해야 할 마지막 분야일지 모른다.

우리나라 같이 남북·지역·이념·계층·세대·빈부·남녀 등 각종 갈등구조가 중층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에서 잠재적 폭발 가능성이 많은 종교 갈등마저 미리 예방하지 않는다면 더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종교개혁의 우리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종교로 세상을 말해왔지만 이제는 세상으로 종교를 말해야 할 시점인지도 모른다. 국민의 진정한 행복과 내실 있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그동안 '민주화와 투명성' 등의 사회적 과제에 가려져 잠시 미루어져 왔던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와 같은 개인적인 양심과 인권의 문제, 그리고 다종교사회의 공존공리에 대한 추구를 우리 사회의 진지한 화두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주화·평등사회 등 거대 담론 속 종교문제 '씩' 자라

불교마저 사회성을 상실하도록 만든 상황은 서양종교가 아무런 거름장지 없이 모래땅에 불타기식으로 빨리 들어오도록 발미를 제공하였고, 서구문물, 특히 교육과 의료 부분 속에 묻혀 들어오는 과정에서 친서구적 사회지도층들에 의해 각별한 역할과 위상을 인정받으면서 그동안 초법적, 위헌적 선교행위를 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 잘못된 관행은 무소불위의 기독교처럼

기 시작했으며, '평등권' 확보를 통해 남녀평등, 노사관계와 인권의식의 발전 등 자유·평등·인권 등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온 결과 사회에 누적되어 왔던 어두움을 걷어내며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어낸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교육자, 종교문화인, 시민운동가 등 사회지도자들은 그동안 '민주화

종교로 세상을 말해왔지만 이제는 세상으로 종교를 말해야 할 시점인지도 모른다. 국민의 진정한 행복과 내실 있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그동안 '민주화와 투명성' 등의 사회적 과제에 가려져 잠시 미루어져 왔던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와 같은 개인적인 양심과 인권의 문제, 그리고 다종교사회의 공존공리에 대한 추구를 우리 사회의 진지한 화두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합 움직이거나 열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영숙 박사의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골반명가 天一氣功 천일기공은 93년도에 창립되어 14년간 수많은 손님들과 불자들에게 건강법을 전수 해 왔습니다. 소백산 수련원에서 실시하는 '3박4일코스 건강기공 강좌'에는 전국각지에서 대덕님들과 불자들이 꾸준히 참가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